

## “수국 1만 그루 심으라는 작업지시, 작업거부로 막아내다”

-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부경지회 김재철 지회장 인터뷰

김그루 회원

부산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인근에 ‘렛츠런파크’라는 경마공원이 있다. 몇 해 전 마필관리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부당한 다단계 구조가 알려지면서 문제 사업장으로 주목받았던 곳이다. 지난 5월엔 마사회가 조경직 노동자들에게 수국 1만 주를 심으라는 얼토당토않은 갑질을 했고 노조가 작업중지와 함께 즉각적인 투쟁으로 부당한 작업지시를 철회시켰다는 승리의 소식이 들려왔다. 이곳 경마공원 노동자들에게 그간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부당함에 맞서 어떻게 싸워 왔는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부경지회 김재철 지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4년 마사회에 입사했고 올해로 22년째 근무 중입니다. 여기서 최고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염수 관리하는 환경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7년 시설 분회장을 맡

으면서 노조 간부로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한국마사회지부 부경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어요.

### 마사회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저희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미화파트가 있고, 경비업무, 기계전기 부서가 있고요. 이곳이 공원이다 보니 녹지가 많잖아요. 나무와 풀, 조경 관리가 있고, 관로를 관리하는 토목, 오페수를 관리하는 환경, 건축물 등 이것저것 다 고치는 영선과, 출퇴근 차량과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배차를 관리하는 수송부가 있어요. 그리고 승마장 말을 관리하는 직종도 있고 마구간과 경주로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 지회장님이 속한 환경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환경과에서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월·화가 휴무라서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합니다. 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배수가 잘돼야 해서 펌프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물 안에 있는 미생물을 키워서 부유물질을 없애는 ‘처리수’는 고도 공정 처리를 거치고 그 후 활성탄을 거쳐 깨끗하게 방류되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죽은 말을 소각하는 일과 공원에 있는 골프장을 점검하는 업무도 합니다.

### 직종이 다양하니 일하는 분들도 많겠어요. 고용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들은 마사회의 자회사인 한국마사회시설관리 소속이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 마사회 직접고용이 되지는 못했고 시설관리 자회사로 고용되었어요. 자회사 직원은 전체 237명이고 이중 계약직이 15명이에요. 저희 조합원은 148명이고요.

### 오랜 기간 근무하셨는데 그간 마사회의 노동환경은 어떠했나요?

사람대접을 못 받고 지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12시가 식사시간이잖아요. 저희는 11시가 되면 업무를 중단하고 모여야 했어요. 왜냐하면, 마사회 직원들이 집밥을 좋아한다고 해서 밥이랑 반찬을 직접 만들어야 했거든요. 뒤에 가면 창고가 하나 있는데 가스렌지하고 조리기구가 많아요. 스물넷에 입사해서 그때 뭘 알겠어요. 처음엔 시키는 대로 후라이 하고 야채를 볶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했죠. 그때도 참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어요. 젊은 나이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자격증 공부하고 일하기도 바쁜데 왜 이걸

해야 하지? 옥해서 관리자들과 싸우곤 했죠. 그런데 싸우고 나면 제게 돌아오는 건 임금 동결이었어요. 당시 우리는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있었고 매년 1년 단위로 계약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재계약할 때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던 거죠.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마사회 담당자가 관리하는 밭이 뒤쪽에 있었어요. 밭에 배추 심고, 대나무 죽순 따고, 땅 파고, 매일 1시간 전에 출근해서 밭에 물도 주고 별짓을 다 했어요. ‘x밭’, ‘x새끼’ 욕을 듣는 것은 일상이었고요. 그렇지만 저 혼자 싸우고 대든다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한참 뒤에야 노조에 가입하게 됐죠.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 2017년 노조를 시작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말했고 우리도 마사회 직원처럼 정규직이 된다고 하니까 젊은 직원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모두 반기며 기대를 많이 했죠. 다 같이 정규직화 투쟁에 참여했고 특히 부산은 늘 제일 많은 인원이 결집해서 안 가본 데 없이 연대투쟁을 다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공공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자회사에 의한 직접고용으로 마무리되었고 2020년 1월 시설관리 자회사가 설립됐어요. 당시엔 어쩔 수 없이 자회사로 전환했던 것인데 우리 노조가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처우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이전까지 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었



▲ 2025. 05. 22. 마사회 정문앞에서 진행한 중식선전전. 사진 : 마사회지부 부경지회

던 일들을 노조를 통해 여러 동지와 같이 싸워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얻어내는 기쁨이 컸어요. 처우가 개선되고 임금도 조금씩 오르고, 현장에서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 최근 수국을 1만주 심으라는 마사회의 지시에 맞서 투쟁으로 중단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올해 4월 말경 조경 조합원들이 전화로 빨리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가보니 사측이 수국을 심으라 지시했고 비닐하우스에 이미 수국 5천 그루가 깔려있더라고요. 수국이라고 하니 꽃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1미터씩 되고 수국나무라고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심기 위해 포크레인이 3대나 들어와 토목공사까지 했어요. 우리 조경 일은 유지보수를 하는 일인데 조경공사를 하라고 하니 맞지 않잖아요. 마사회가 조경업 등록도 하지 않고 이런 공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회사가 밀어붙이더라고요. 지회장인 저 나름대로는 마사회 직원과 자회

사 사측과 협의를 해야겠다고 판단했는데 상황이 그게 아니었어요. 조경부서 37명 중에는 계약직이 15명 있어요. 계절직 계약직인데 연간 9개월만 계약을 해요. 사측이 계약직만 따로 불러놓고 협박을 했더라고요. 지시대로 안하면 이후 계약이 안된다는 식으로요. 그 얘길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회사가 비겁하게 제일 약한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수국 나무 1만 그루를 심어야 한다고 해서 바로 작업을 중지했어요. 한 달 넘게 집회하면서 공공운수노조 마사회지부와 민주노총부산본부에 연대요청을 하고 노동위원회와 국토부, 감사원에도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6월에는 본관 앞 집회를 계획했는데 마사회가 처음엔 차벽을 세우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 연락이 와서는 수국 식재 작업 지시를 철회하고 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용연장에 대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부 직원이 계약직으로 있는 한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어요. 지금



▲ 2025. 07. 13. 마사회지부 부경지회 김재철지회장 인터뷰 모습. 사진 : 김그루

상시 고용된 조경직원도 부족한 상황인데다, 계절직이라고는 해도 기존 조경직원들 하는 일 대부분을 함께 해왔기에 계약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계속 싸우려고 합니다.

#### 현장의 노동안전을 위한 최근 활동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조경도 그렇고 경주로도 땀벌에서 일하는 구조다 보니 매우 힘들거든요. 지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폭염 시 야외작업자들에 한해서는 휴식시간을 최대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해서 현장에서 관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휴게실은 근무 현장 가까운 장소에 있는 휴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서 에어컨 켜며 쉴 수 있는 구역을 몇 개 설정해 놓았어요. 없다고 일을 안 할 수 없지만 휴식시간을 최대한 보장받아서 덥고 힘들 때 쉴 수 있게 한 거죠. 최근 조경부서에서 따가운 별 때문에 눈부심이 심한 상황이라 노조에서 기능성 선글

라스를 요구하였고 현재 지급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야외작업자를 위한 안전보호구인 거죠.

#### 노동조합의 이후 계획은 어떤 게 있나요?

윤석열 정부 시기 노동조합의 힘이 많이 후퇴한 게 현실이에요. 비정규직 투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회사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마사회와 상시 소통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잖아요. 자회사는 그냥 행정 처리하고 월급만 대신 지급하는 인력 업체일 뿐이죠. 마사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업무를 지시하고 있으니, 직접 고용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우리 임금이 올라가고 환경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공공기관부터 투쟁에 앞장서고 전 사회적으로도 진짜 사장이 직접 고용하는 방향으로, 공공운수노조가 민간 사업장 투쟁에도 적극 연대하며 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두고 간다면 조합원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